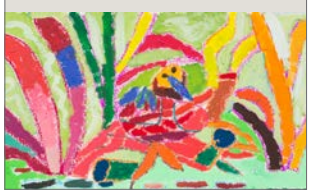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12명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Art Calendar 전시
●일시: 12월 12일(주일)까지
●장소: 장천갤러리



“이불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합니다”

청년부 〈사랑의 이불나눔〉 모금행사, 11월 28일(주일)~12월 25일(토)까지

대강절,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주를 향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대강절 셋째 주일이다. 대강절은 구원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올해는 11월 28일부터 성탄절 이전까지 4주간이다. 대강절기 성전에는 4주일을 뜻하는 4개의 초가 불을 밝힌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은 주일마다 소망, 준비, 사랑, 기쁨의 의미를 담은 초를 켜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19의 변이 발생과 차가워져가는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한다.

청년의 나눔 열정,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광림청년들의 겨울은 ‘나눔’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불에 주님의 사랑을 담는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탄을 배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온 청년들은 정부시책으로 많은 가정에 보일러가 공급되자 연탄의 수요가 사라져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가정들이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사랑의 이불 나눔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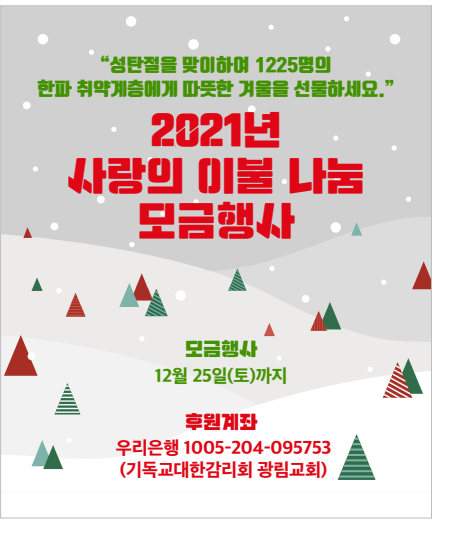
“1년 만에 모금함 앞에 다시 서니 작년 연탄봉사를 하며 얼굴에 흐르는 검은 땀을 닦아주시며 연신 고맙다 좋아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요. 올해도 모금함이 가득 채워져 예쁘고 따뜻한 이불을 들고 찾아가 뵙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며 이소연 청년은 활짝 웃는다.

〈2021 사랑의 이불나눔〉 모금행사가 지난 11월 28일(주일)부터 본당로비와 사회 봉사관 연결통로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모금은 12월 25일(성탄절)까지 5회에 걸쳐 열리며 후원액 목표는 5,100만원이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1차로 12월 18일(토) 일원동, 개포동, 세곡동, 신사동 등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25명에게 방한용품과 함께 이불을 전달한다. 이어 전국 20개 지역 100개 교회 1,000여명에게도 택배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이불을 공급하는 공장에서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특별 할인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김주송 목사(청년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난방비가 무서워 차가운 냉골에서 지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두툼한 겨울이불 한 채만 있어도 한 겨울 잘 보내실 수 있다 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올해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후원 문의: 이동원 전도사(010-5626-6217)

2 광림의 강단 능력 안에 사는 삶
3 광림 스토리 경조총회
4 하나님을 만나다 Art Calendar2022
5 다음세대 Shining Saturday Activities
7 믿음의 현장 선교구 소식
8 특집 파이프 오르간 – 대예배실

능력 안에 사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

인간은 끊임없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직면했을 때, 누구든 절망하거나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2~3)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한계 앞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 때 그 인생은 능력 안에 살게 됩니다. 본문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고 제한적인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초월적인 사건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험, 역경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 기도하기를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 앞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본문 11~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13절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회심한 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빌 3:7~8) 과거에 자신이 붙잡았던 지식과 명예,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은 언제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배고픔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삶을 살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빌립보서 2장에 가장 좋은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의 본을 기록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 가운데 온전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겸손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며 자신을 비우는 겸손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능력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로의 영성을 찾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을 대상으로 '2021 평신도 리더십 향상 세미나'가 지난 11월27일(토)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 장로보수교육위원회와 장로회 서울남연회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장로들이 영적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 감리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엡 3:7~8)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빛의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고, 성장을 가져오며,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다음의 10가지가 장로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둘째,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세상의 향락에 절제되어야 하고 넷째,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하며 다섯째,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어야 한다. 여섯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일곱째, 자기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여덟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아홉째,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하며 열 번째,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과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광림 4Steps 평신도지도자 교육〉 종강

광림교회 리더들을 위한 주일 교육프로그램 〈광림 4Steps 평신도지도자 교육〉이 11월 28일 종료되었다. 각 선교구의 속장, 지구장, 선교회장 등 임원들은 9월 5일부터 12주 동안 매주일 오후 2시~4시까지 사회봉사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지켰다.

교육은 김정석 담임목사, 정존수 목사, 조성한 목사, 오세우 목사, 권순정 목사, 박중섭 목사가 맡아 Step1 '예수님의 사랑 알아가기'(Knowing Jesus)를 주제로 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리더들은 매주 새로운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랑, 소망, 성장, 치유, 변화와 보내심을 배우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강의가 끝나면 선교구별로 토론의 시간을 통해 배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그룹에서 나눈 진솔한 신앙의 체험을 앞에 나와 발표하며 리더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마지막 강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능력으로 미래를 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요셉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 광림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세워지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구지영 성도(1교구)는 "매주 좋은 권사님들과 속회와 같이 신앙을 나누면서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들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했고, 나와서 간증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고백했다.

소현수 기자

한 해 동안 수고한 경조위원들 위로와 격려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송병제 장로)에서는 지난 12월 5일(주일) 오후1시, 시화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2021년 경조총회를 개최했다. 각 교구별 경조회 임원들과 선교구 목사 및 전도사들을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담임목사의 권면의 말씀과 경조위원회 보고에 이어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268건의 장례와 457건의 기타 경조사가 있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경조위원회가 선교구와 교구 목회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22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경조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병제 장로는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조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성도들이 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일에 좀 더 힘 쓸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포토 뉴스

하반기 목회세미나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광림수도원에서 하반기 목회세미나가 열렸다.

사랑의 당근 나눔
여선교회가 후원 받은 당근을 성도들과 나누었다.

본당 로비 성탄 포토존
본당 로비에 성탄을 축하하는 포토존이 설치되었다.

담임목사 동정

11/28	4steps 강의
11/29	감리교 기도의 날
11/30	트리니티 종강
12/2	남연회 정책협의회
12/3	교계지도자모임
12/5	경조총회
12/7-9	하반기목회세미나
12/10	교회학교전국연합회 교사 전국대회 특강
12/1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부회장, 지방회장 워크샵
12/12	세례예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내 인생의 말씀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니라"(살전 5:16~18)

남들보다 많은 횟수의 '자녀 수능기도회'에 참여하며, 감사할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큰 아이의 2번의 수능 기도회와 유학, 편입. 남들보다는 긴 입시기도를 참여하게 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삶으로 간증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순간의 좌절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의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주셨음 감사합니다.
작은 아이의 삼수를 통해, 세상의 잣대로 분노함을 회개하게 하셨고, 저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 신앙의 멘토이신 시어머님의 식탁에 20년 넘게 놓여져 있습니다. 10여년을 모시고 살 때는 젊고 미숙하여, 항상 기뻐하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범사에 감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밥 푸실 때도, 상 차리실 때도, 운전 하실 때도 기도 하십니다. 저에게 시어머님은 기도로 새벽을 열고, 기도를 사모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15년 후, 저도 기도하며 수없이 많은 감사할 것을 세어볼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심에 우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젠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삶 속에서 보여주신 말씀의 신앙,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의 신앙, 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신앙이 차고 넘치어 대를 이어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 합니다.

주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주가 지켜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가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민 권사
(AB마리아 선교부장)

고운 빛깔로 수놓은 〈Art Calender 2022〉 전시회

12명의 사랑부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아름다운 작품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과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형형색색 고운 빛깔이 되어 작은 화폭에 담겼다.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 아티스트 12명의 〈Art Calender 12명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2022년〉 전시회가 장천 갤러리와 온라인에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 중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몸짓과 손짓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매력적인 작품들로 가득했다.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수련한 아티스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매년 그림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에서 '광림사랑부'를 검색하면 아트 캘린더 전시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올해는 작품 이미지 데이터를 디지털 프린트로 출력하여 최대한 원본이 주는 감동과 은혜를 더했으며 작가의 서명도 새겨 넣었다. 그림 작품들은 액자 형태로 제작되어 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벽걸이 캘린더로도 만들어져 광림교회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캘린더를 찾는 광림교인들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작년보다 2배 많은 물량을 제작했다.

또한 아트 캘린더는 베트남, 중국, 몽골, 일본, 뉴질랜드 등의 해외선교지에도 보내져 아티스트들이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따뜻한 겨울 풍경을 묘사한 박진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마을〉은 김정석 담임목사의 성탄 카드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

우형진 권사(사랑부 위원장)는 "광림교회 사랑부 30주년이란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사랑부 아트 캘린더 전시회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사랑부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참여 아티스트와 작품들

박진수 〈숨바꼭질 연못, 행복한 크리스마스 마을〉,
김기현 〈황혼을 가르는 앨버트로스〉,
배병관 〈새와 나무〉, 홍우선 〈아침이 오면〉,
전지원 〈하나님〉, 구나연 〈기린 가족〉,
정윤서 〈닭장의 휴식〉, 박윤수 〈가고 싶은 길〉,
홍태혁 〈블루 레인〉, 정민규 〈유럽풍경〉,
이주혜 〈나들이〉, 이주형 〈핑크와 블루〉

미리보는 2022년도 광림교회 캘린더

광고를 통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함〉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

2022년 새해 달력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해마다 광림의 성도들은 교회 달력을 설레임으로 기대한다. 내년 캘린더는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과 콜라보레이션해 제작했는데, 매달 캘린더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2022년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It's Okay!'는 1월 캘린더에 담겨있는 메시지이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세계 오대양 6대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광고로 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57개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판을 붙인 버스와 택시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 대형 광고판에도 24시간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가 가동되고 있다. 또 세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태국의 지하철역 등에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 내용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등이다.
〈복음의 전함〉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전문가 셀럽들이 광고모델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또 국내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광고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후원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 국가와 민족, 언어와 시차를 넘어서 광고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전도 플랫폼인 〈들어볼까?〉를 통해 셀럽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지속돼 온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가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성령충만해져야 한다."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은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복음의 메시지로 캘린더를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해외 선교지에 전해진 성탄 선물

580여 감리교회 선교사 가정에 나눔박스 전달

지난 광림선한나눔 운동을 통해 기부된 물품과 기부금이 국내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지에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 700여 가정 중 우편 발송이 가능한 580여 가정에 한국식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담은 나눔박스를 발송했으며, 탄자니아, 르완다,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약 5톤 분량의 어린이 교복과 활동복, 교육 교재 등을 발송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펜데믹의 공포와 우울함, 선교의 문이 막혀져 있는 곳에 선교사를 위로하고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선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워가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는 교복을 통한 선교의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캄보디아 서동원 선교사는 "광림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물품에 감사하며, 성탄을 앞두고 매우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으며, 이우람 선교사는 "광림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교복과 여러 의복들을 캄보디아 감리교회(MCC)에 고르게 전달하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모든 교역자들과 학생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라며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교복은 현지 아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되었으며,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다른 아이들에게 학교를 자랑하며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광림교회에서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눔박스를 통해 큰 위로를 주심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Shining Saturday Activities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히 배우는 SSA

SSA과학상자

"토요일 9시 50분 조용하던 복도에 "타다다닥",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뛰어와 인사하는 소리로 SSA는 시작됩니다. 까르르륵! 하하하! 수업시작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웃는 소리가 어느새 잦아들면 아이들이 수업에 빠져듭니다. 열심히 뛰고, 배우고 난 후 땀을 흠뻑 흘리며 예배 장소에 모이는 아이들!

예배가 시작되면 신나는 음악과 율동에 맞춰 찬양하며 어느새 반짝거리는 눈으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작은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SSA는 아이들의 토요일을 더욱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다양한 배움의 시간도, 땀 흘리며 뛰는 즐거움도, 모두 SSA에 준비된 시간입니다. 수업 전에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수업, 예배 중에 만나는 많은 친구들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SSA 함정애 간사

"광림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언젠가는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 과학, 수학축전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고, 대학생 때는 과학 교육 봉사 동아리에도 참여하며 경험했던 노하우로 Shining Saturday Activities <과학 상자>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의 연령이 생각보다 어려서 10명의 아이들을 가끔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아이들과 친해지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7주가 지난 현재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스스로 해내려고 하고 있으며,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SSA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된 것에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짧은 수업 동안 하나님 안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도 느끼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SSA 과학상자 정유진 강사

개강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 SSA는 현재 농구, 배드민턴, 풋살, 코바늘, 과학상자, 연기, 바이올린, 피아노 총 8과목의 수업이 진행 되고 있다. 발레, 컴퓨터, 베이커리, 조향, 영어 등의 과목도 곧 개강될 예정이다. 겨울방학 동안 실내 운동을 하고 싶거나 평소 관심 있던 과목이 있다면 QR코드로 직접 신청하거나 교육국(02-2015-1178)에 문의 바란다.

박희윤 기자

시 간	과 목	부 서	인 원	강 사
10시 - 10시 50분	초급 코딩	초등	10명	블록봇
	코바늘	초등	5명	안지혜
	바이올린1	초중등	2명	김안나
	바이올린2	초중등	2명	정재윤
	과학상자	초등	10명	정유진
	발레	8-11세	7명	이수민
	연기			이은창
	예 배			
11시 30분 - 12시 20분	풋살	초등	10명	정성민
	코바늘	초등	5명	안지혜
	오카리나	초등	10명 이내	박봉규
	바이올린1	초중등	2명	김안나
	바이올린2	초중등	3명	정재윤
	바이올린3	초중등	4명	김진숙
	영어회화	전연령		황희순
	발레	6-7세	7명	이수민
	연기			이은창
14시 - 14시 50분	농구	초등	10명	정성민
	발레	6-7세	7명	이수민
	배드민턴	초등	10명	김형식
	중급 코딩	중고	6명	이동엽
	바이올린2		2명	정재윤
	피아노(30분)	전연령	1명	임소윤
	베이커리			고은경
	예 배			
15시 30분 - 16시 20분	탁구	전 연령	10명	
	배드민턴	초등	10명	고정수
	컴퓨터(itq)	초등	5명(최소)	장남순
	우쿨렐레	초등	5명	임소영
	바이올린2	초중등	2명	정재윤
	피아노(30분)	전 연령	1명	임소윤
	커피	중고등		남미숙
16시 30분 - 17시 20분	워십	전 연령		김한나
	바이올린2	초중등	2명	정재윤
	피아노(30분)	전 연령	1명	임소윤
	사회	4학년 이상	6명	윤지민
	영어찬양	초등		최영민

신앙 간증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소연 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속장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제 삶과 속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속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함께 신앙을 키워오던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에, 저 역시 부족하지만 내가 속장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도하며 예비속장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원래 속회에서 분속하는 과정에서 함께하게 된 속원들,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 속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속회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성경지식도 부족하고 속회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으며 청년부에 대한 체계도 무지한 부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속회를 시작할 때, 함께해 준 두 속원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속장이 될게. 기도 많이 할게'라고 이야기 했던 말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며 늘 속회를 위해 기도하는 속장이 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속회는 적은 인원으로 단출하게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외치실 때, 저는 코로나 시국에 부흥이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속원들 한 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 시켜달라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속회가 기존 속원들의 회복과, 전도를 통해 지금은 재적인원 18명, 출석인원은 평균 10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런 것 이구나를 몸소 체험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기쁨을 감사하게도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다같이 모이기도, 나눠서 모이기도, 때론 온라인으로 모이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의 속회의 운영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연 속장(청년부)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 목회현장 -

김정규 목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선교사 알렌의 입국(1884.9)에 의한 왕립병원 광혜원(제중원)의 출범(1885.4)은 136년이 지난 오늘날 국립서울대학병원으로 약진하였고 그 전통을 이어 2003년 5월 10일 진료를 시작한 분당 서울대학병원은 환자 중심의 경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민과 함께 하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병원으로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종교(와 윤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2003년 6월 22일 분당 서울대 병원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교회 원목실은 첫째, 건강의 4차원(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가운데 특히 환우들의 영적인 치유에 힘씁니다. 둘째,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병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낙심한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넷째, 병원교회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드리는 공간으로 24시간 개방하여 누구나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 환우들과 그 가족들과 병원에서 일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환우들은 대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낙심과 염려, 불평불만 등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충분히 들어줌으로 함께 공감하려 노력하고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질병 예방에 힘써야겠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행복의 밑천이고 큰 재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건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며 오직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평소 식사습관, 체력관리, 질병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먹은 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평생 건강 복을 주셔서 만족하리라 만치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림남교회

"빨리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림남교회 교육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영아부실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어와나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인 전인적 교회 교육과 토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4주간 진행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유치, 유년 초등부의 협조로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홍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어와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와나가 2년여 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렬을 맞추며, 질서를 배우는 모습들, 게임의 시간들을 통한 역동적인 모습들, 그리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번 어와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와나의 주제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광림남교회 자녀들이 될 것을 믿고, 이를 위해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어와나가 되겠습니다.

한준구 전도사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성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2021년 대강절,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광림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광림서교회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슈박스>를 진행합니다.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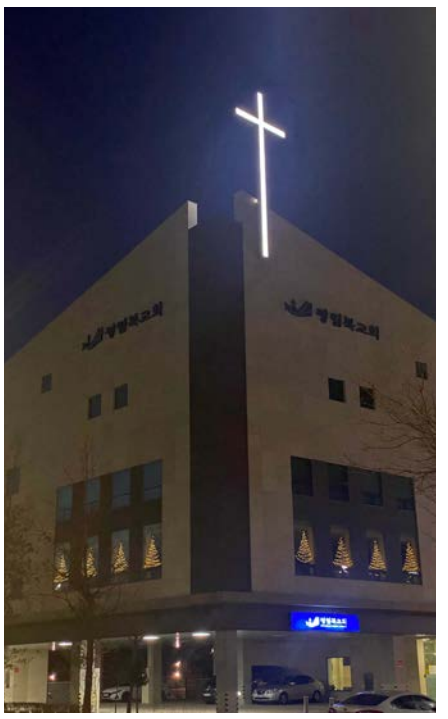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받은 사랑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강절,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림북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 세상과도 소통하며 함께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음악협회>와 함께하는 <훈훈한 음악회>가 광림북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모든 출연진이 함께하고, 자유롭게 기부하여 지역의 청소년들과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당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이불 나눔>행사에도 북교회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쁜 소식과 따뜻한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대강절, 성탄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3선교구

일어나 함께 가자!

믿음의 세겹줄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 3선교구 일일기도회

지난 10월 28일(목) 3선교구는 광림비전랜드에서 일일기도회를 진행했다.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7,8,9교구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서우채플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선영진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가자"(아 2:10)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 속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실 뿐 아니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주저앉아 있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3선교구는 강원도 홍천, 춘천, 경기도, 여주, 청평, 가평 등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지만 마음은 가장 가까운 선교구이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신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일어나자"고 말했다.

성도들은 말씀에 힘을 얻고 힘차게 찬송하며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다. 윤명희 권사(7교구)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위축되어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받은 은혜를 전했다.

오후에는 2부 순서로 '가을찾기 사진 콘테스트' 행사를 가졌다. 사진 콘테스트에는 특별한 미션이 더해졌다. '예쁜 가을풍경을 배경으로 두 명 이상 함께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제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 맑은 하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3선교구는 '세겹줄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 선교구'이다. 성도들은 비범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속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어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소현수 기자

1선교구

사랑의 연합으로 만추의 길을 걷다

1선교구 남산 둘레길 걷기대회

새가족과 함께하는 1선교구 연합 걷기대회가 11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남산 둘레길에서 있었다.

1선교구는 1교구(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 2교구(종로구, 중구, 옥수동), 3교구(서대문구, 은평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새가족 10명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 2명을 포함하여 총 99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약 한 시간을 걸어야 하는 코스였지만 경사가 완만하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다. 함께 걷는 걸음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그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기도 하였다.

1선교구 담당 목사인 김정우 목사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면서, 모이지 못하고 외부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며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한번 모여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선교구 특성상 가장 가까운 장소여야 했고, 특별히 함께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대화하며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남산 둘레길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걷기대회의 중요한 목표는, 첫째는 1선교구의 연합과 친목을 위함이었고 둘째는 새 가족들을 초대하여 선교구 식구들과 친교를 나누고 교회로 정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며 걷기대회의 취지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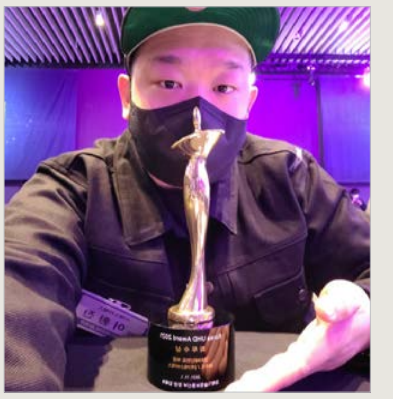
선교구 연합회장 윤정주 권사는 "11월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11월 20일 당일이 되자 기온이 따뜻하였고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새롭게 교회로 찾아오신 성도님들,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오신 성도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께도 많은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교구 담당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더욱 정진하고 부흥하는 1선교구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날 걷기대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에 대해 움츠리기만 하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완화되어 2년 만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속회, 선교회, 예배 출석에 더욱 힘쓰겠다는 마음들도 나누며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변영혜 기자

7선교구

'LOUD' 연출로 장관상을 받은 이환진 집사



이환진 집사(20교구)는 2010년 SBS 방송국에 PD로 입사하여 K팝스타, 강심장, 런닝맨 등 줄곧 예능방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 왔다. 그 인연으로 개그맨 유재석씨와 친해져서 광림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당시 유씨가 사회를 맡고, 많은 연예인이 예식장에 찾아 왔던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올 6월 부터 9월까지 방송된 'LOUD'의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 최고 시청률 11.3%를 기록하며 화제 속에 방영되었던 'LOUD'는 방송이 끝난 뒤인 지난 11월 1일 열린 'Korea UHD Award 202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격인 '엔터테인먼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소감에서 이환진 PD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탄생할 보이그룹에게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이그룹 탄생 프로젝트인 'LOUD'는 작곡가 박진영과 싸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타 오디션과 달리 춤·노래뿐만 아니라 작사·작곡·악기·편곡·미술·무용 등 다방면에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참가자들의 내면과 성장 스토리를 담아 내며 '착한 오디션'으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환진 집사는 모태신앙(부: 이동호 장로, 모: 남영조 권사)으로 지난 5월 2일 주일 예배시 쌍둥이 아들 둘이 유아세례를 받아 3대가 광림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하는 등 항상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집사는 PD 직업에 대해서는 "대학시절에 음악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방송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화사업에 헌신하라고 불러 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하여는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길 원하며, 청소년 문화선교사업에 앞장을 서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꿈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는 PD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득섭 기자

광림교회 파이프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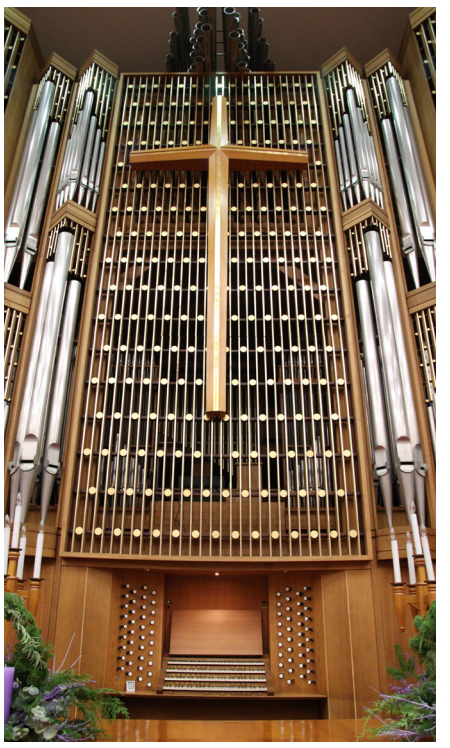
영감 있는 천상의 소리 –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

광림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요하네스 클라이스에서 1991년부터 1994년 10월까지 3년 6개월의 설계 및 제작기간을 거쳐 봉헌되었다. 광림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제단 가운데 신앙의 중심을 표현한 '빛의 십자가'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조와, 수직 디자인으로 건축된 파이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감 있는 찬양의 신앙적 표현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배치한 파이프는 안정감과 장엄함을 유도하며 음악적, 시각적 효과를 더 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대예배실 공간에 음들을 가득 채우며 예배 의식과도 일치하고, 연주회를 위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입체적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대예배실 오르간 설치는 최적 조건을 찾아 오르간 전면 디자인을 제대 중앙 십자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너무 강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했다. 또 오르간에 필요한 모터, 바람을 저장하는 바람 창고, 메탈과 나무 파이프 그리고 오르간 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갈 메카니즘의 장치 등을 뒤쪽 깊숙히 설치할 적당한 각을 찾아내어 건축되었다.

광림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61개 스톱(레기스터), 4단의 손건반, 발건반과 4,500 여개의



▲ 본당 제단 중앙 '빛의 십자가' 아래 위치한 기계식 오르간 연주대는 4단의 손건반과 스톱 장치들이 있어 연주회 등에 사용되고 있다.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천상의 소리로 예배를 돕고 있으며, 바로크 음악에서 현대 음악에 이르는 오르간 레파토리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오르간은 설치 당시 60개의 스톱(레기스터)으로 확정되었으나 후에 종소리의 일종인 글록켄 슈필(튜브벨)을 추가해 61개의 레기스터를 가진 악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4개의 연주 건반과 페달 메카니즘 작동의 연주대와 전기로 연결되는 움직이는 연주대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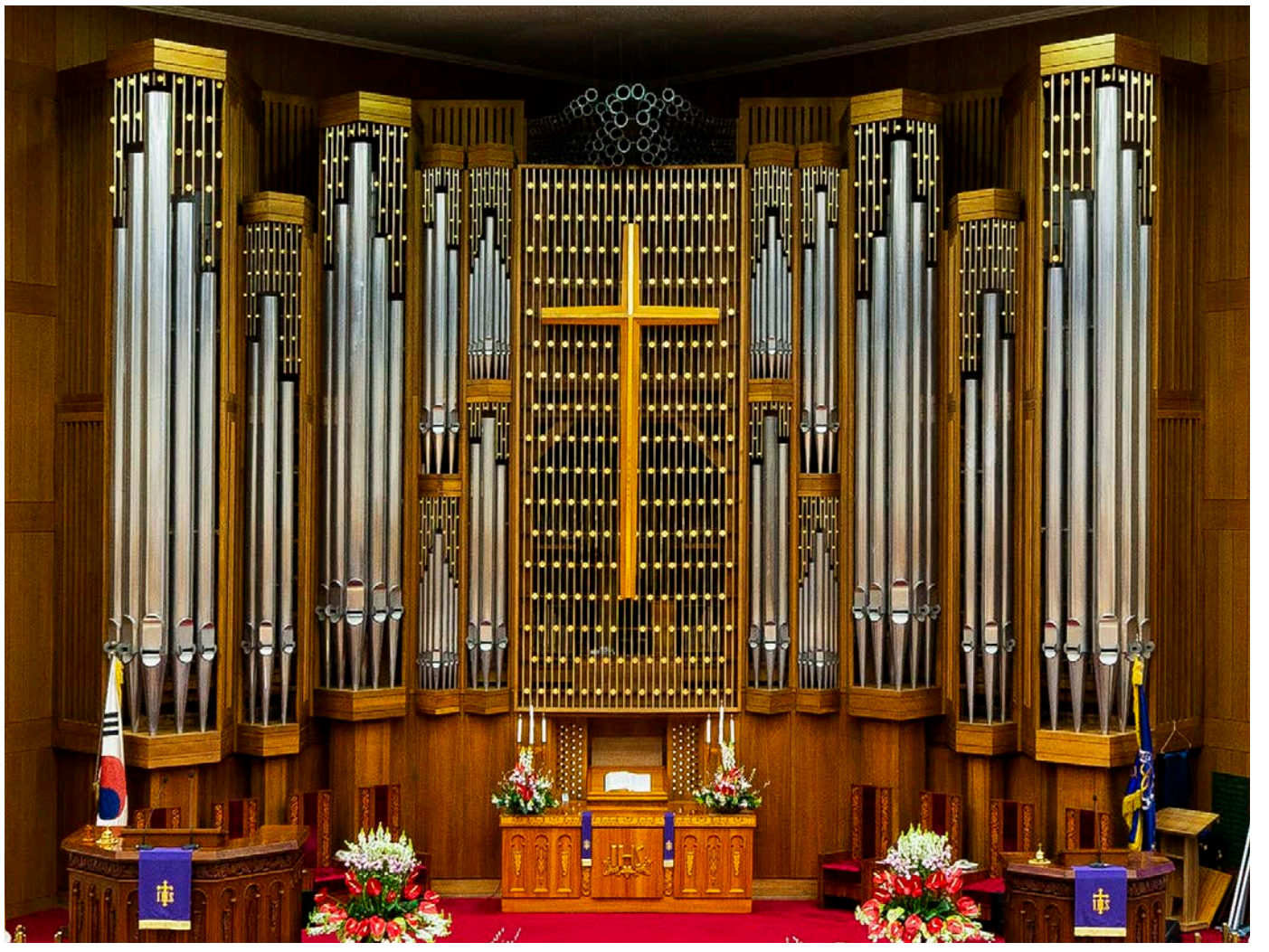
오르간 건축 후 홀의 음향조건에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즉 잔향이 없고, 특히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음향적 반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잔향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다시 건축 보수 작업을 약 6개월 동안 진행했다.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와 천장의 높이 조절, 소리가 퍼지게 할 수 있도록 단단한 마감처리 등을 통해 최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잔향 확보에 성공했다. 여기에 새롭게 변화된 음향에 맞게 4,500여개 파이프의 보이싱(정음) 작업을 다시 해 오르간이 가져야 하는 원래의 소리를 되찾으며 영감 있는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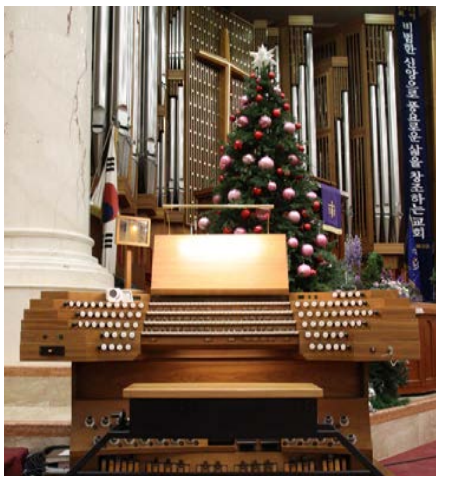
건반악기이면서 관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은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면 파이프가 진동해 소리가 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겉으로 보이는 건반과 파이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수많은 부품들과 장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소리가 난다. '인간의 기술이 이루어낸 최고의 승리이며 가장 완벽한 악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악기가 오르간이다.

파이프 오르간은 연주자가 연주대에 앉아 악기의 모든 것을 조정한다. 연주대는 여러 개의 손건반, 발건반(페달)과 소리의 특성과 음높이를 조절하는 스톱 장치(레기스터), 연동 장치, 소리의 강약의 표현을 도와주는 스웰 박스 등이 있으며, 파이프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게 표현된다.

파이프 오르간은 놓는다고 하지 않고 건축한다고 한다. 교회 건축 당시부터 십여 년이 넘게 제단 뒤편 공간을 비워 두었던 것도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르간 건축 비용이 100만 달러였다. 오르간 건축을 위한 비전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 중 12명이 1억 원씩 헌금하며 시작한 오르간 건축은 삼년이 넘게 걸렸다. 봉헌한 성도들은 두 번이나 독일 클라이스 오르간 회사를 방문해 제작 현장을 보며 기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장인의 손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파이프 오르간은 1994년 10월 9일, 봉헌 예배와 축하 연주회로 하나님께 올려졌다.

이상희 기자





▲ 본당 대예배실 1층에는 61개 스톱과 4단 손건반, 발건반 등의 전자식 오르간 연주대가 있어 예배와 각종 집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편집인 정존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